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를 위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문

강민정(경상국립대학교)

이 논문은 그간 공공기관 공문서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한자어 사용'과 관련하여 한자어 평가 목록의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 검토와 관련하여

3장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와 같은 '다듬은 말'이 없는 한자어는 평가 대상으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 목록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면(減免), 경감(輕減), 과태료(過怠料), 낙과(落果), 도제식(徒弟式), 무상(無償), 발족(發足), 병행(並行), 부과(賦課), 비위(非違), 빈번(頻繁), 상설(常設), 선도적(先導的), 숙의(熟議)

평가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하지만 '다듬은 말'이 없는 한자어를 평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다듬은 말은 모든 공문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에서 제외한다면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한자어의 '다듬은 말'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은 말이 없다면 한자어의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등의 방법도 있으므로 '다듬은 말'의 유무가 목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목록 중에 '유송대, 다심도, 세천, 변서'와 같은 일부 용어는 그 용어의 의미나 용법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평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짧은 소견으로는 의미나 용법을 확인할 수 없다면 더 어려운 한자어 목록에 추가하여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한자어 난이도와 관련하여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용된 한자어가 '어려운 한자어'인지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용 한자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시면서 한

자어 난이도 문제는 친숙도 정도 등 한자어를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명확하게 어려운 한자어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3. '어려운 한자어' 평가와 관련하여

- 1) 4장에서는 경기도 지자체 16곳의 보도자료 80건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2)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에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평가 목록이 구축되어 '어려운 한자어' 사용 평가에 활용되면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 구축한 평가 목록으로 평가한 후에 새로운 8개의 추가 검토 단어가 나타난 것을 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에 모든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만약 평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려운 한자어가 공문서에 사용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4. 수용도 조사와 관련하여

5장에서는 4장에서 구축한 목록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평가하면서 새롭게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 아래의 8개 한자어에 대해서 수용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설건축물, 가용자원, 공가, 낙상, 배석, 와해, 집중호우, 학령

이 수용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러한 조사가 '어려운 한자어'를 판별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으로 '어려운 한자어' 평가 목록을 구축할 때 우선 평가 예비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들에 대해 수용도 조사를 한 후 최종 평가 목록을 만드는 방향은 어떠할지 여쭙보고자 합니다.